

음악 교육 동향*

한국성악교육연구회

: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즐겁게 노래하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실현해가는 단체

Korean Society for Vocal Music Education (KVME), helping enjoying the
beauty of vocal music and developing varied education methods

고미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Professor Julia Mihyun Kho, Ph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음악적 본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태고적부터 인류와 음악은 끊임없이 공존해왔다. 노래를 하는 것은 인간의 성대를 활용한 원초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에서 한층 진보한 것으로서 인간의 회로애락과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고차원적 예술 활동이다. 이와 같이 가창 활동은 유희나 여흥을 위한 음악활동에서부터 작곡자와 연주자의 음악세계를 발현시키는 고등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음악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음악적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음악의 여러 영역 가운데 특히 가창영역은 신체를 악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즐겁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창활동은 혼자 연주하는 독창도 가능하지만 다수가 함께하는 합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협동심과 유대감을 갖도록 하며 심성순화와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한다.

한국성악교육연구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 현직의 음악교사들과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인 음악가들이 모인 단체이다. 성악전공 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머리를 맞담으로써 현장에서 활용가능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가창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음악의 미적 속성에 대한 경험과 음악적 정서 및 표현력을 배양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및 음악적 가치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가창활동은 소리가 보이지 않아 실제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의 가창 교육은 추상적이고 느낌 중심의 교육이 답습되어 반복되곤 하였다. 반면 한국 성악교육연구회는 좀 더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있다.

2015년에 창단된 한국성악교육연구회는 <2015 - 정치용 교수 지휘 / 광복 70주년기념 광화문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에 독창자 및 합창단으로 출연하여 호평을 받은바 있으며, 국립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음악학술대회 MUSICUM-20에서 성악교육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5 한국음악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 각종 여러 분야의 음악회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 한국성악교육연구회 명단 〉

고 문
자문위원



민경훈



고영신



권수미

회 장



고미현

부회장



강진모



박영진

회원



손승혁



류정례



김은주



노승환



김현미



허영춘



김나래



김혜진



이아람



김이레



이은선



공해미



오종봉



장길용



백민아